

무안공항, 올 하반기 조류탐지 레이더 첫 시범운용

올해 하반기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탐지 레이더가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시범 운용된다.

또 전국 모든 공항에서 충돌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제거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안전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이착륙 시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전면 개선한다.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방위각시설은 올해 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한다.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서는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한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은 올해 하반기 중 우선 종단안전구역을 늘리고, 원주·여수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

하천·도로와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시멘트 블록인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의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안 발표 전국 공항 ‘둔덕 방위각’ 제거 사망사고 낸 항공사 운항 제한

무안공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도 순차 도입한다.

이에 앞서 조류의 접근을 막는 드론을 김해·청주 등 전국 8곳의 민군 겸용 공항 중심으로 투

입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과 조류 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공항별 최소 2명인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4명으로 늘리고 무안공항은 12명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한다.

국토부는 공항 시설 개선과 조류충돌 방지 예산으로 약 2,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대책은 항공사의 안전 경영과 투자, 정비 역량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는다.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배분 심사에 반영한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공시 제도도 개선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수 항공사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항공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 이날 발표에서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무안공항 폐쇄 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었다.

정근산 기자

광주 최고 땅값 총장로 우체국 m²당 1227만원

전남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총장로 우체국으로 m²당 1,227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선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m²당 432만원이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광주시 결정·공시 대상은 37만3,980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1.94%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1.45%보다 높았으며 전국 평균 2.72% 보다 낮다.

자치구별로는 북구 2.23%, 남구 2.16%, 서구 2.09%, 광산구 1.72%, 동구 1.38% 순으로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동구 총장로2가 우체국으로 m²당 1,227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37만원 하락했다.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m²당 884원

이며 지난해 대비 7원 올랐다.

전남도가 조사·산정한 54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42% 상승했다.

시·군별로 모두 상승한 가운데 신안이 2.30%로 가장 높게 올랐고, 다음으로 순천(1.84%), 여수(1.75%) 순이다. 곡성은 0.52%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전남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m²당 432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영암읍 농덕리 묘지로 m²당 168원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지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장성서 전남도장애인체전 파파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전’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소년이 온다’ 5·18 조명…45주년 특별전

10월 19일까지 민주화운동기록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오는 10월 19일까지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소년이 온다’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과 정신을 문화과 기록으로 새롭게 조명한다.

문화과 기록, 감정과 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가치를 되새긴다. 소년이 온다는 누구이며, 왜 오게 됐고, 그가 오는 길은 어떤 의미였는지 등 본질적인 질문을 전시 전체에 녹여 관람객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기획했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3개의 본 전시, 에필로그로 구성됐다. 한강의 소설 구조를 반영해 감정의 서사를 따라 전개된다.

프롤로그는 동화를 그리는 어머니 영상과 함께 소설의 첫 페이지를 여는 문으로 인도, 관람객들이 준비된 상태로 전시 관람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1부 ‘소년을 부른 사람들’은 광주의 5월에는 존재했지만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평범한 사람들, 처음부터 살아남으려 한 것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질 존재들에 주목한다.

제2부 ‘소년이 오는 길’은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부각된다. 이 섹션은 소년이 남긴 이유와 죄책감, 부끄러움, 분노, 공동체적 양심에 초점을 둔다.

제3부 ‘소년이 여는 시간’은 과거가 현재를, 다시 현재가 과거를 살리는 광주정신의 가치를 조명한다.

에필로그 ‘오늘, 소년이 온다’는 관람객이 직접 문장을 필사하며 자신만의 ‘소년’과 마주하는 참여형 전시공간이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문학을 통해 확장되는 5·18민주화운동은 과거와 현재, 나와 너, 우리가 연결돼 있음을 알려준다”며 “오늘 우리에게 걸어오는 광주를 함께 마주하러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전남도, 국내외 협력 여행사와 관광발전 ‘맞손’

20곳 초청 ‘5월 전남 방문의 달’ 프로모션 안내·상품 운영 협의

전남도가 국내외 협력 여행사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30일 “전남 관광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 청취를 위해 수도권 협력여행사 20곳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공덕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관광객 유치 실적이 우수한 아주센티브, 프리미엄

인터내셔널, 신승여행사 등 15개 해외 협력 여행사와 아름여행사, 동백여행사 등 5개 국내 협력여행사가 참가했다.

전남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5월! 전남도 방문의 달’과 관련, 숙박 및 주요 관광지 할인 프로모션을 설명하고 남도 미식, 웰니스, 문화기행 등 테마형 여행상품을 통한 관광객 유치 협조를 요청했다.

여행업계는 개별관광객이 늘어나는 여행트렌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와 외래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을 주된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

다.

또 도내 주요 숙박시설 정보 제공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지역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돼 주는 국내외 협력여행사를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며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해 활력 넘치는 전남 관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5월! 전남도 방문의 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산 기자

광주교통공사, 일반·공무직 18명 공개 채용

광주교통공사가 일반직 및 공무직 신규직원 18명을 공개 채용한다.

일반직은 사무 1명, 기록물 관리요원 1명, 승무 5명, 통신 1명, 전자 1명, 차량 1명, 기계 1명

이다. 공무직은 역무 1명, 미화 6명이다.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및 전공에 제한이 없으나 광주시 거주 또는 지역 학교 졸업자 등의 지역 제한이 있다.기록물관리자, 승무, 미화 등

일부 분야는 필수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5월 9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 통합채용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필기시험, 서류 및 인성 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7월 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승한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육아는 한마음 아이는 큰희망

보건복지부 | 전라남도 |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 법원비용은 별도로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채권자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 신입·경력사원 | 영입팀 / 채권추심팀 | ▶지사로온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0 / 010-2603-1050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그린궁 **宮** |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자하린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NAVER **드림꽃도매** | 검색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정품 화환 75,000원 |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